



서울 서초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한국필름은 최근 사옥 이전행사를 가졌다. 이와관련 총괄대표인 차의송 사장은 한국필름과 가남개발의 사옥 통합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필름, 서초동 시대 열어 “디지털시대 선도 역점”

코니카 미놀타 인쇄용 기자재 한국 총대리점인 (주)한국필름(대표 차의송)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4-10에 새 사옥을 마련, 새로이 서초동 사옥 시대를 맞았다. 신사옥은 대지 604평방미터(183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연면적은 1769평방미터(535평)이다. 2층에는 (주)한국필름, 3층에는 자매회사인 (주)가남개발(전자산업용 필름 공급업체)이 함께 입주했다.

한국필름은 서초동의 신사옥에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중구 충무로 물류센터를 종전과 같이 유지해 나가기

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국필름과 (주)가남개발의 총괄대표인 차의송 사장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반세기 가깝게 중구에서 인쇄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 온 한국필름이 2008년을 맞이하면서 서초동의 새 터전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옥 이전은 작년부턴 자매회사인 가남개발과 상생을 위한 통합작업을 추진해 온 통합작업의 결실이며 신사옥 입주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통합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사장은 또 “이제 한국필름과 가남개발은 인쇄산업과 전자산업



을 아우르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소개했다.

인쇄계의 디지털화 선도에 기여할 터

차의송 사장은 지난 2000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급변하는 인쇄계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일반 재료의 공급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경영을 펼쳐 왔다. 현재 주력제품군인 코니카 미놀타의 디지털 교정기 KOSENSUS-PRO와 디지털 인쇄기인 LD-5100이 판매 이래 수년 동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판매되고 있는 모델인 LD-6500 등 신제품군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디지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필름도 국내 디지털 자재 및 장비 보급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필름의 사업구조가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차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디지털화가 대세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 이상은 필름 시장이 존재할 것이니 만큼 필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필름 사업부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 본연의 자세 잊지 않는 윤리경영

올해초 사옥이전에 즈음해서 한국필름은 차피득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이삼량 부회장을 회장으로, 차송 가남 개발 사장을 총괄부회장으로 각각 추대한데 이어 이광욱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김시만 한국필름 관리이사를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체제 개편을 통해 차의송 사장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차 사장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윤리적으로 경영한다는 세 가지 경영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원칙은 회사 운영의 터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를 잊지 말아야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적으로 일상에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잘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인재의 양성을 위해 직원의 처우와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눔의 경영을 해나간다는 것이 차 사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차 사장은 지난 1월 한국필름과 가남개발, 대양PTS 임직원과 함께 서울 중계본동의 고지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경사진 고지대이기 때문에 밥상 공동체등의 주관으로 함께 한 이번 행사에 적잖은 도움과 온정을 전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모금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영, 기본적인 것이지만 쉽지 않은 일에 충실한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엿볼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은 듯하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